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5장 14-21편

Tag: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5:14-21)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유명하여 사람들로 항상 북적 거렸다.

거기에는 38년이나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환자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씩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연못에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얻었다.

38년이 지나도록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얻었다. 38년은 긴 세월이다. 그는 결국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가 이미 오래도록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낫게 해 주셨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딱 한명만 고쳐 주셨다. 시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만 고쳐 주셨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성경말씀도 있지만, 또 치유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수로보니게여인의 청은 거절하셨다. 물론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어 낫게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원치 않으신대도 어쩔 수 없이 치유를 베푸시지는 않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가? 만약 낫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막6:56)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38년된 병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돛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사람들이 돛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돛자리를 들

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상황 설명)

어떤 사회든 완장을 차고 호르라기를 붙어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여 사사건건 판지를 걸고 싶은 자들은 있다.(완장맨)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다. (요즘에는 공산당)

안식일에 돛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지 선행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 아닌 것이다.

만약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병자들을 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게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을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나 형편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이 완장을 벗고 겸손하여 회개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결코 낮게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병에 걸려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것을 거리키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려는 자들이다. 왜냐면 이들은 종교적인 일(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생노릇을 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려는 욕구가 강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심하게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제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서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왕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아

니되웁니다를 외쳐댄다. 제사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 가면 문중마다 꼭 이런 분들은 계셔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분들이 계셨다. 요즘에는 거의 이런 분들 보기 힘들지만, 비슷한 현상이 국회나 광화문에서 많이 자행된다.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어처구니없는 혈전을 벌인다. 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가지고 마녀사냥을 하고 법을 주물럭거리는 자들이어서 그런지 맘대로 법을 어긴다. 마치 교통순경이 교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4절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음을 입은 자를 염려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병의 원인이 죄인 사람) 그 죄가 무엇이든, 38년 동안 내리 동일한 죄를 지어왔던 사람이 아닐까? 또 조만간 동일한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닐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을 고쳐준 사람을 찾아가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신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8년은 긴 세월이다. 그가 반복해서 연못을 찾았던지, 아니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집불통이었던지 했을 것이다. 아무튼 눈치도 없어서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고자질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예수님은 적극적인 선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다. 요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껏 선행을 베푸시니 예수님 자신도 선행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러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신성모독이라고 언성을 높

였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기초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아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비하면, 병자를 고치는 일쯤이야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적인데, 기적앞에 저토록 당당하게 대드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죽은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도 큰데, 앞으로 닥치게 될 기적은 더 클 것이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재앙도 크지만, 앞으로 닥칠 재앙은 더 클 것이다.(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멀리하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더 큰 재앙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재앙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성경적 사고의 독특성 (특히 개신교적 가치관에서)

사고의 비교를 통한 독특성

1. 자연과 생리에 지배를 받느냐, 자연과 생리를 지배하느냐?
2.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3. 유일신인가 다신인가?
4. 거룩한가 혼합주의인가?
5. 율법주의인가 혁신운동인가?

사고의 비교

그리스로마 사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 지역은 생각을 정리하고 전승하고 비교연구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켰다. (탈레스, 아낙시멘드로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연구함(원인물질)물이다, 무한한 것이다. 공기다...)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함. 대부분의 경우 토렘사상부터 시작됨. (동물 or 식물이 조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 심지어는 특정 동물에 대한 숭배의식까지 생김.) -우리나라는 곱. + 환웅(환인의 서자) (로마는 늑대)

문화 비교표

구분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문화
특징	인간중심적, 합리적	세계적, 개인주의	실용적, 법률·건축 발달 학문·예술면 -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 모방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금욕주의)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학파(쾌락)	스토아 철학 유행
과학	히포크라테스(의학) 피타고라스(수학) 아르키메데스(물리)	유클리드(기하학)	프톨레마이오스 "전동설"
미술	파르테논 신전 비너스, 라오콘상 아테네 여신상	간다라미술의 영향	건축: 콜로세움, 판테온, 개선문, 공공 목욕탕 등의 건축물
문학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헤시오도스 소포클레스		키케로
사회 기타 분야	역사: 헤로도토스 "역사"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의학: 히포크라테스		법률: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로마법 대전 역사: "리비우스" "로마사"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카이샤르 "갈리아 전기" 플루타르코 "영웅전" 종교: 그리스교의 탄생과 전파

스토아학파(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체계는 키티온의 제논이 만들었다. 그는 상인으로 서 아테네로 가다가 바다에서 재산을 잃어버렸다. 견유(犬儒) 학파의 크라테스는 제논을 위로하면서 물질 재산이란 인간의 행복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제논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가다듬은 뒤 스토아 포이킬레(여기서 스토아주의라는 이름이 나옴)라는 공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논은 인간 행복의 기초는 (자기 자신과) '합일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훗날 정식으로 "자연과 합일하여 사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인간에게 유일한 선은 덕(德) 가지는 것이며, 부나 가난, 건강이나 병, 삶이나 죽음 등 다른 모든 것은 아무 관계도 없다. 모든 덕은 올바른 인식에만 기초한다. 즉 자제는 올바른 선택에 대한 인

식, 인내는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의는 '분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다. 모든 악의 원인인 정념은 무엇이 참으로 좋은지를 잘못 판단한 결과이다. 세계는 신의 Logos(본래의 뜻은 '말' 또는 '이야기'임)가 지배한다. 이 로고스가 세계를 완벽하고 질서있게 유지한다. 인간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거나 이 질서에 저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서를 교란할 수는 없고 자신을 해칠 뿐이다.

에피쿠로스학파

제논과 같은 시대의 에피쿠로스는 제논에 반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스토아 학파가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행복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 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한 생활의 본질로 삼았다. 스토아 학파는 신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으나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두 철학은 이처럼 대조적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는 똑같다. 비록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좋은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결코 방탕한 생활과 주색잡기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가 생활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것은 소박한 쾌락이었다.

[출처] 그리스로마철학|작성자 아름다운결실

*이슬람의 사상과 조로아스터교 (지리적으로 가까움.)

조로아스터교;일신교적 성격이 강하나, 다신론도 인정함.(아후라 마즈다;창조신) 불을 숭상. 불을 거룩하게 여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강조함.

-그러나 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함.

-이슬람의 행동양식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의 행동양식과 비슷함. (악하고 동물적이며 본능적임)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악령의 신탁을 받은자로 봄이 마땅함.

-무함마드는 기독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동경하였으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자 부끄러운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함. 그 사상 때문에 요즘도 여전히 테러가 자행되고 있음.

*인도의 사상과 일본의 사상

*동양의 사상(중국)

조로아스터교-이슬람주의

힌두이즘과 부디즘

동양/유교, 도교적 사상